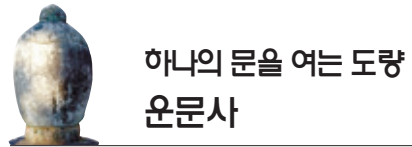


# “명리 구하지 마라” 천 년 유혼 겨울바람 속에서 듣다



하나의 문을 여는 도량 운문사

우리나라 비구니 사찰 가운데 규모가 큰 강원으로 유명한 운문사(雲門寺)는 선종의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찰입니다. 고려시대 원응 국사(圓應國師) 학일(學一; 1052~1144) 스님이 만년에 후학을 지도 하면서 구산서문 최초의 선문인 가지산문의 중심이 장흥 보림사 중심의 전라도에서 가지산을 중심으로 하는 경상도로 옮겨 온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가지산문의 조조인 도의 국사가 은둔했던 설악산 진전사에서 출가한 일연 스님도 운문사에서 만년 4년을 머물렀는데 이때 <삼국유사> 집필을 준비했다는 설과 타고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학과 인연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7세기와 18세기를 걸쳐 살았던 설송연초(雪松演初; 1676~1705) 스님은 서산대사의 법손으로 선교 양종을 통합한 당대의 큰스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운문사 부도발 기행은 원응 국사와 설송 스님의 체취를 더듬는 것이 중심입니다.

다른 절도 대부분이 그렇지만 운문사를 찾는 사람들도 운문사의 역사에 굽은 획을 그었던 스님들에 대한 정보를 놓치고 갑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의 설명을 듣는 답사그룹이라면 종루를 곁한 출입문 왼쪽의 비각 앞에서 간단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각은 세 채가 나란히 서 있는데 첫 번째는 운문사 사적비입니다. 가운데 큰 비각 안에 원응국사비가 모셔져 있는데 귀부나 이수(玉)는 없고 세 조각으로 부서져 마멸이 심한 비돌만 보호 장치로 고정시켰습니다. 비신의 높이는 23.3cm, 너비는 90.9cm이며 보물 제316호입니다.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있으니 들어갈 수는 없고, 앞에서 카메라의 줌을 당겨서 들여다보면 “원응국사비명”이라고 두 줄로 굵게 쓴 제액글씨가 선명합니다.

원응국사비의 비문은 금강거사(金剛居士)라는 호를 썼던 문신 윤언이(尹彦顯 ?~1149)가 지었습니다. 글씨는 당시의 왕사였던 탄연 스님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문의 내용은 27년 동안이나 임금의 곁에서 존경 받으며 법문을 설했던 원응 국사의 도력과 인품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석의 뒷면에



비구니사찰 중 큰 강원으로 유명한 운문사 원응국사 비명

는 229명에 이르는 문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국사의 가문이 얼마나 번성했는가를 알게 합니다. 원응 국사의 부도는 전해지지 않으므로 유적으로는 이 비가 유일한 셈입니다.

국사께서는 세수와 양치를 하시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가부좌로 단정히 앉아 향을 사루고 축원한 후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도력을 기르는데 전력할 것이고 명리를 탐구하지 말라”고 하시고 (결락) “진성은 본래 원명하여 확연히 시방에 두루 하며, 시방이 혼일(渾一)한 동체이고 출몰(出沒)이 분시 동광(同光)이라”는 임종계를 설하자마자 거의 입적상태에 있었다.

비문의 후반부에는 1144년 10월 21일 원응 국사가 입적하기 전 계승을 읊는 상황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숙한 시간에 제자들 가운데 ‘오늘은 세속에서도 좋지 않게 여기는 날인데 오늘 입적하면 어찌나’ 하는 걱정을 하는 이가 있었나 봅니다. 국사는 그 말을 듣고 선적(禪寂)에서 깨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산중에서 수도하는 분상(分上)에는 세(歲)도 없고 일(日)도 없거늘, (결락) 어찌 기일(忌日)이 따로 있겠는가? 오늘이 만약 기일이라면 내가 <삼자경(三子經)> 중에 설한 일체묘보살(一切妙菩薩)의 본생담에 의하여 연명을 제석천왕께 청하리라.”

원응 국사는 스스로 입적의 때가 되었음을 알고 임종까지 남겼는데, 제자들의 염려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 물론 비문에는 원응 국사가 다시 소생해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다가 그 다음 달 보름날에 새로운 임종계를 읊고 입적하는 기적 같은 일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사는 돌이 아니어서 도력이 높은 수행자는 생명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원응 국사가 이야기한 <삼자경(三子經)>은 <불설보살삼자경(佛說菩薩三子經)>으로 육도집경(六度集經)의 제 5권의 제 3 인욕도무극장(忍辱度無極章) 중 삼자장(三子章), 서진(西晉) 시대(A.D. 265~316)에 한역된 것입니다. 고려대장경 연구소가 온라인상에 제공하는 경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처님이 비라륙에게 있을 때였다. 부처님이 전생에 보살도를 구할 때에 계행(戒行)을 갖추고 정진하여 지혜를 닦고 방편으로 많은 공덕을 쌓았음을 모든 비구들에게 설하자, 아난이 부처님에게 전생의 일을 설해 줄 것을 청했다. 이에 부처님이 설했다.

먼 옛날 도솔천(兜率天)에 일체묘(一切妙)라는 이름의 보살이 있었다. 그는 시방 세계에 호순한 이가 있는가를 천안(天眼)으로 관찰하다가 가이국(迦夷國)의 한 장자를 보게됐다. 장자는 자식이 없이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부부가 모두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에 들어가 무상(無上) 지혜를 구하고자 했다. 이를 본 보살은 소경 부부의 눈이 되고자 원을 세웠다. 도솔천에서의 수명이 끝나고 보살은 소



한 줌 햇살만으로도 포근한 운문사 부도발. 설송 스님의 부도를 비롯한 9기의 부도가 나란히 서있다.

## 비구니 사찰로는 규모 큰 운문사

### 원응국사 머물며 가지산문 선포 전파

###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 집필·탈고해

### 이천보 집안 5대 이어 서산문중 비문 써

경 부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름을 섬(諱)이라했다. 섬은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고 자비심이 많았다.

섬은 나이가 10세에 이르자 부모에게 원래 세웠던 원(願)대로 함께 산에 들어가 정진하자고 권했다. 섬은 가산을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보시하고 부모와 함께 산으로 들어갔다. 그는 부모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심으로 봉양했다. 산에서 생활한 지 1년이 지날 무렵에 섬은 사슴 가죽옷을 입고 물을 길어 오기 위해 섬에 갔다가 마침 사냥을 나온 가리국 왕이 사슴으로 오인하여 쏜 화살에 맞았다.

왕이 사람 소리에 놀라 가보니 섬이 쓰러져 있었다. 도인을 쓴 것을 알게 된 왕은 놀라고 두려워서 잡회하고 백방으로 그를 구하고자했다. 그러나 섬은 자신의 수명이 숙세의 죄로 인한 것이므로 죽는 것은 당연하나 자신이 죽으면 앞을 보지 못하는 부모들이 누구를 의지하여 불도를 닦겠는가라고 걱정하면서, 왕에게 부모의 안위를 당부하고 죽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은 섬의 시신 앞에서 슬피 울며 하늘과 땅에게 섬의 지극한 효성을 안다면 섬을 살려 달라고 빌었다. 제2 도리천의 왕, 석(釋)이

이 광경을 보고 내려와 신기한 약으로 죽은 섬을 다시 살렸다. 모두들 기뻐하는 가운데 왕이 섬에게 응서를 빌자, 섬은 왕에게 앞으로 5세(戒)를 받들어 살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설하고 전생의 인연을 밝힌 다음에, 정진의 도결(道決)을 이룬 것은 부모의 자비로 비롯된 것이므로 효도로서 도를 배울 것을 아난에게 당부하자, 모든 이들이 부처님께 공경했다.

생사의 인연이란 자신의 업연에 따르기도 하지만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켜 새로운 삶을 얻는 기연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운문사 부도밭은 절 아래로 다시 내려와 내원암 가는 길을 따라 호젓한 산길을 500m 쯤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설송 스님의 부도를 비롯한 9기의 부도가 일렬로 나란히 서 있습니다. 맨 왼쪽에는 남봉(南鳳) 스님의 표지석이 부도를 대신 하는 듯 서 있습니다. 남봉 스님은 설송 스님과 함께 밀양 표창사 중창 불사를 주도했던 스님입니다. 겨울 전나무 숲에는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지만, 부도밭은 한 줌 햇살만으로도 촉한 듯 포근하고 양명합니다.

부도 마다 앞에 표지석을 세우거나 탑신에 주인의 범호를 새기고 있지만 그 행적이 남아 있는 스님은 설송 스님 뿐입니다. 운문사 도량에서 있는 설송 스님의 비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그 내용을 후세에 전하고 있습니다.

설송 스님의 비문에는 아주 재미난 사연이 기록돼 있습니다. 비문을 지은 사람은 조선 영조 때의 문신 이천보(李天輔, 1698~1761)인데 그의 집안이 대대로 서산대사 문중의 큰스님들 비문을 지은 것이니

다. 즉 이천보의 5대조는 서산 휴정 대사의 비문을 지었고, 고조부는 언기 대사의 비문을, 종증조는 의심 대사 비문을, 종조부는 설재 대사 비문을 지었고 자신은 설송 대사의 비문을 짓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5대가 서산대사 계열의 법손들의 생애를 줄줄이 기록했으니 참으로 놀라운 기연(奇緣)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천보가 지은 비문에 따르면 설송 스님은 선교에 매우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산 대사이래 선교 교로 나누어졌던 문도들의 기풍을 설송 스님이 하나로 통합한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천보는 이를 멋진 비명으로 남겼습니다.

선정이 바로 지혜요 지혜는 바로 선정이니 선종과 교종 따지지 마라. 통하면 동정이 따로 없어 달이 물속에 박히듯이 동서를 나누어 비출 뿐 오직 대사의 심법은 두 문을 하나로 만들었네.

오늘도 운문사는 하나의 문입니다. 선도 교도 염불도 하나로 융합해 하나의 도량을 이루었을 뿐입니다. 구름의 문이 열리어 우주에 자비광명이 넘쳐흐를 그날에도 운문사는 하나의 문일 것입니다.

글·사진=임연태(시인·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 LEADER



##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들이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임시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헤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